

「NHI-Live(4-6월)」 발간 기사 목록

vol.46

| 구성 | 주요내용 |
|--------------|---|
| NHI News(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 인재양성 교육 최고 강사 선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인정받은 민간경력자, 19개 부처에 배치 - '제67기 신입관리자과정(경채)' 59명 수료, 4월 18일부터 업무 시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재원, 과학기술 체험 교육공간, 도란도란 장영실 마당 개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 시대 정책 역량, 함께 키워요 - 제4회 온(On)세상 지식 탐구생활, 온라인 생중계 공개강좌 개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도약을 이끌 예비 사무관 305명 양성 - 3년만에 대면 입교식, 현충원 참배 후 17주간 교육 돌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기 9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 교육 수료 - 3년 만의 대면 수료식,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다 |
| NHI Plus+(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보,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찬란한 내일을 위해! - 밝은 미래로 첫발 내디딘 사회초년생을 위한 꿀팁 |
| 기 타(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

국가공무원 인재양성 교육 최고 강사 선정

— 권오철 작가 · 송재진 대표, '21년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 헌정 —

국가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해 탁월한 강의를 진행한 최고 강사 2명이 선정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명 중 심사를 거쳐 권오철 천체 사진작가와 정보보안 전문가 송재진 대표(SONG-PRO) 2명을 명강사로 선정하고,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권오철 작가
천체사진작가

송재진 강사
송프로 대표

국가인재원은 강의 전문성과 역량, 교육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최고 강사를 명예의 전당에 헌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31명이 선정됐다. 이번 헌정 대상자는 지난해 출강한 외부 강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강의평가를 받은 강사 중 교육부서 추천, 예비심사, 최종선정위원회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권오철 작가는 「천체 사진가의 우주와 삶 이야기」 강의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을 소개하고, 천체 사진가로 도전하며 만난 난관의 극복 과정을 강의에 녹여내 호평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강의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사고 등이 일과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송재진 대표는 「정보보호와 친해지기」 강의를 통해 온라인 업무환경 확대로 중요해진 개인정보보호, 해킹의 위협과 대응체계 등의 주제를 알기 쉽게 전달해 교육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위협 사례로 교육생들의 흥미와 경각심을 이끌고, 대응 방법도 효과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지난 한해 국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준 모든 강사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인재원은 시대 흐름에 맞춰 공직사회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성 인정받은 민간경력자, 19개 부처에 배치

— 제67기 신입관리자과정(경채) 59명 수료, 4월 18일부터 업무 시작 —

지난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59명의 신입 사무관들이 교육을 마치고, 19개 부처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 확립과 정책기획 및 지도력(리더십)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공직 가치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나누고 공직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진행했다.

또 부처 정책담당자의 생생한 현장 경험 공유와 다양한 정책보고서 실습을 통해 현업에 투입되는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특히 데이터 문해력(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가상현실(VR)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반을 활용하는 등 교육방식을 다양화했다.

이날 수료식을 마친 59명의 신입 사무관들은 4월 18일부터 총 19개 부처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외교부에 배치될 손원호 사무관은 "지난 십여 년간 중동 현지에서 쌓은 석유자원 관련 업무 경험과 중동의 역사·정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중동간 전략적 관계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배치될 이재은 사무관은 "역학조사관으로서 현장 경험과 질병 연구 전문성을 살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기반의 보건 의료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공직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67기 신입관리자과정(경채) 온라인 수료식

국가인재원, 과학기술 체험 교육공간, 도란도란 장영실 마당 개관

● 국내 최신 과학기술 우수 연구성과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과학기술 교육공간이 처음 마련됐다.



교육공간 전경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과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정모)은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 내에 국내 과학기술 우수 성과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 '도란도란 장영실 마당'을 개관한다고 5월 3일 밝혔다.

● 국가인재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직자들의 사고와 이해를 넓히기 위해 지난 2월 국립과천과학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 교육공간을 조성했다.

- ▶ 교육공간은 ▲과학의 이유 ▲과학의 방법 ▲과학의 성과로 구성됐다.
- ▶ 과학의 이유에는 인류가 과학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전시했고, 과학의 방법 공간에는 운동 에너지를 체험해 과학계의 가설을 직접 입증해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 ▶ 성과 공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극지연구소 등 8개 기관에서 제공한 로켓 누리호 발사체, 자연어 인식 인공지능 체험물, 얼음 속 화학 현상 등을 관람하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채워졌다.

● 국가인재원은 과학기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중심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디지털 역량과 과학기술 이해 관련 교육과정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 정책환경에 맞는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대한민국이 G10 국가가 된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 발전과 제조 역량이며, 앞으로 G7, G5 국가로 가기 위한 핵심 화두도 과학기술 창의혁신 역량이므로 공직 인재들이 과학기술 발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개발을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란도란 장영실 마당 현판 제막식

국제화시대 정책 역량, 함께 키워요

— 제4회 온(On)세상 지식 탐구생활, 온라인 생중계 공개강좌 개최 —

공무원의 글로벌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제문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간 온라인 특별강좌가 열렸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4월 27일 '제4회 온(On)세상 지식탐구생활, 안녕! 가치 들어요'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강좌의 주제는 '공무원의 글로벌 감각 키우기'로 진행됐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로서,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은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고, 공직자들의 국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교육은 ▲글로벌 시대의 한국과 공직자 ▲뉴노멀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사회·문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오준 이사장은 '글로벌 시대의 한국과 공직자'를 주제로 세계 환경변화와 국제위상에 맞는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에게 직면한 글로벌 한 주제를 다각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세계화 시대에 맞는 한국의 공직자로서 역할과 책임감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어,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은 '뉴노멀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 제대로 배우자'를 주제로 세계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경제전망 등을 제시했다. 다양한 차트와 통계 그리고 세계정세의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경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유익한 강의였다.



(그림1) 오준 이사장 강의모습



(그림2) 김광석 실장 강의모습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해진 국제정세 및 세계질서를 전망하고, 새로운 국제관계 전략을 제시했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유익한 시간이었고,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한반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가 협력하여 평화를 통한 안보를 추진할 때, 우리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함이 공감되었다.

마지막으로 강형원 포토저널리스트는 직접 찍은 생생한 현장 사진을 가지고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사회·문화'를 설명했다. 세계에서 볼 때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나라 사회와 문화의 가치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림3) 김준형 교수 강의모습



(그림4) 강형원 포토저널리스트 강의모습

이번 강좌는 온라인 교육 자료로도 별도 제작해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누리집 '나라배움터(<http://e-learning.go.kr>)'를 통해 제공된다.

이처럼 국가인재원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공개강좌를 운영해 공무원의 자기개발, 일터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 제5회 공개강좌 : 5.25(수) 13:30 ~ 17:30 /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 정부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글로벌 정책 역량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오늘의 온라인 특별강좌를 계기로 "앞으로도 공직자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도약을 이끌 예비 사무관 305명 양성

— 3년 만에 대면 입교식, 현충원 참배 후 17주간 교육 돌입 —



현충원 참배



현충문 앞 기념 촬영

대한민국 도약을 이끌 예비사무관 교육이 5월 12일부터 17주간 진행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305명을 대상으로 12일 '2022년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입교식'을 개최했다.

예비 사무관들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입교식과 현충원 참배에 참석하며 공직자로서 첫발을 뗐다.

올해 교육은 지난 2년간 축적한 비대면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 특성과 교육 효과성을 고려해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하이브리드 교육)한 형태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디지털 역량과 정책 기획, 지도력(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국정철학 등 주요 교과는 사전 온라인 학습(이러닝)으로 기초 내용을 교육한 후, 토론·실습·현장학습까지 심화학습으로 이어지는 역진행 수업(플립러닝)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과 디지털 대전환 주도를 위해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했다. 먼저 기초·이해 단계에서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기본소양과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획, 실습 과정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심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부분 새천년세대(MZ)인 교육생들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직급별 역할과 필요역량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새로운 조직과 인간관계에의 적응을 위해 마음 건강 관리 프로그램, 교육생 간 협업을 위한 다양한 팀 활동 등도 실시한다. 이날 입교식에 직접 참석한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바른 공직가치를 확실히 정립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어 달라"고 강조했다.



입교사



입교식 기념 촬영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신임공무원이 꿈꾸고 그리는 만큼의 크기로 대한민국은 커갈 것이고, 여러분의 철학의 깊이, 고민의 크기, 배려의 넓이만큼 정책과 국민 신뢰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생을 대표하여 다짐을 발표한 김우진 교육생은 "올바른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중간관리자에게 필요한 소통과 협업 능력을 함양하겠다"며 "정책기획 역량을 높여 훗날 정부 내외에서 인정받는 공직자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0기 9급신규자과정(지역인재 수습직원) 교육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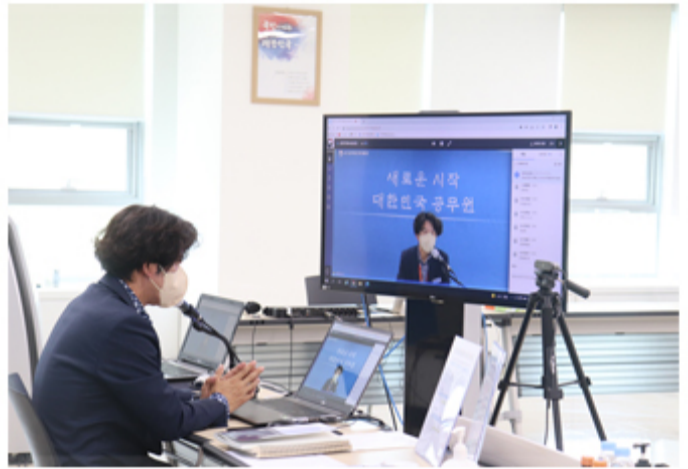
— 3년 만의 대면 수료식,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다 —

2021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합격자 311명이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은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4주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나, 수료식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실시했다.



입교식



실시간 온라인 수업

이번 교육과정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올바른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정책실무자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교육생들은 대한민국의 신규공무원으로서 4차 산업혁명 대응, 탄소중립 실현과 같은 주요 과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생소했던 공직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직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토론 및 팀빌딩 등 다양한 참여형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아울러, 본 과정은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고교 졸업 후 바로 입직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법제와 예산 등 기초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4주간의 교육을 통해 신규공무원으로서의 기초 역량을 쌓은 교육생들은 대면 수료식에 참석하여 처음으로 동기들과 직접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과정 수료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교육생들은 "교육이 너무 빨리 끝나 아쉬운 마음이 있으나 4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 그리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다" 고 수료 소감을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앞으로 정책 현장에서 하게 될 고민의 깊이가 자부심의 깊이가 되고 적극적 자세의 크기가 보람의 크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여러분의 지혜와 고민, 적극적인 자세와 헌신이 만들 더 따뜻하고, 더 크고 멋진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과정을 수료한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311명은 향후 정부 부처에서 실무를 익히기 위한 수습 근무를 하고, 6개월 후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수료식

“브라보,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찬란한 내일을 위해!” —— 밝은 미래로 첫발 내디딘 사회초년생을 위한 꿀팁 ——



드넓은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역량은 학교에서 충분히 쌓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웬걸, 막상 부딪쳐보니 운동 실수투성이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동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테다. 아직 새로운 체계를 비롯해 비즈니스 용어와 매너 등에 익숙지 않으니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월급 관리의 현명한 재테크와 동떨어져 있고, 자기 계발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물론, 누구나 처음은 서툰 만큼 포기하는 이르다. 다시금 용기를 북돋워 자신감을 충전해보자. 아울러 슬기로운 꿀팁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한다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도약은 문제없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전화·이메일 응대, 자기소개가 먼저



무려 2년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이나마 호전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체에 진입했다. 자연스럽게 과거 비대면 위주였던 소통이 점차 대면으로 전환하자 갖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 층, 특히 언택트 중심의 대학 생활을 겪은 세대는 혼란을 느끼기 마련이다. 실제로 경험을 밝히며 조언을 구하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충돌, 예의나 상식에 관한 의견 차이 등에 관한 제보가 잇달아 다양한 논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시대에 따른 변화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통용하는 예절엔 이견이 생길 수 없을 터다. 예를 들어 연령이나 직급이 더 높은 분을 만났을 땐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하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선 우선 자신을 소개한 다음 본론을 밝혀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신입 사원 대다수가 어려워한다는 전화 역시 마찬가지다. 정확한 발음으로 이름과 소속 등을 알리고 나서 메시지를 전달하자. 만약 유선상 특정 담당자와의 연결이 필요한데 부재중이라면 발신자 측 성명과 직급, 회사 번호, 수신 시간, 간략한 내용 등을 메모해서 전한다. 또, 긴장하거나 잘 들리지 않았을 땐 재차 질문해 답변을 듣도록 하며, 통화 종료 시엔 인사까지 마치고 난 뒤 여유를 두고 끊는다. 한편 이메일은 프로젝트 관련자마다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직급 순서대로 참조하고, 확인 후엔 받았다는 답장을 보낸다.

비즈니스 미팅부터 업무 관리까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하게



비즈니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팅에서 사회초년생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바로 명함 관리다. 평소 수첩, 지갑, 가방 등에 지참하면 고객사나 거래처에 갔을 때 손이 부끄러운 순간을 방지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인사나 자기소개와 같이 명함 또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전한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은 후엔 무심코 킁기거나 접는 행동을 삼가야 하며, 테이블 한쪽에 두고 유심히 살피면 좋다. 아울러 회의나 출장이 끝났을 때 쌓이지 않도록 틈틈이 정리하도록 한다.

업무가 나지 않는 경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보자. 직장인에게 필수로 통하는 ‘리멤버’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명함을 촬영해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같은 앱을 이용하면 승진이나 부서 이동 시 변경 사항을 반영해주기에 추후 혹시 모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덧붙여 업무 관리를 총괄해주는 앱 ‘노션(Notion)’은 오프라인 필기가 커버하지 못하는 일정과 문서 정리, 데이터베이스 등을 총괄하며 다각도로 뒷받침한다. 깜빡했다는 변명이 속 들어가기쯤 도와주는 만능 비서 덕분에 축 처진 두 어깨에 힘이 난다.

지나친 욕심은 OUT!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부(富)테크 비결



조직 체계와 업무 적응 못지않게 사회초년생이 어려워하는 첫 단추는 월급 관리다. 입사할 땐 첫 급여를 알뜰살뜰 운용해야겠다고 계획하지만, 정작 받아보니 녹록지 않은 까닭이다. 게다가 대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같은 나이에 큰 부를 거머쥐었다는 사례를 보면 왠지 배가 아프고 무모할지언정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 수 있다. 그러나 재무설계 분야에선 현업에 충실하길 추천한다. 일명 파랑새증후군(Bluebird Syndrome)이라고 해서 동화 <파랑새>처럼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놓아버리면 결국 발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평균 급여와 생활비를 비교해 월 잉여자금을 파악하고,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노후, 기타 등 목표에 따라 통장을 나눠 저축하라고 권한다. 구부 없이 저금하면 갈 길을 잃고 소비하기 쉽다.

더 나아가 재테크의 바다에 뛰어들기 전 준비 운동하듯 경제 신문을 꼼꼼히 들여다보자. 코스피(KOSPI) 지수나 환율, 금·원유 가격 등을 확인하는 습관은 기초 체력을 다져준다. 동시에, 신용카드나 대출을 목적에 맞게 적정히 사용하며 연체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한다. 신용도 관리는 자산 상승으로 향하는 단계 가운데 가장 기본이다.

온라인 세계에서 찾은 자기 계발의 길



돈이 없어서 자기 계발 못 한다는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궁무진한 교육 콘텐츠를 선사하는 온라인 세계가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손꼽히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seoul.go.kr>)’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나 장애인식교육과 같은 법정/의무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인문학, 외국어, 자격증, 취업·창업, 문화교육 등에 관한 온라인 학습을 통해 원하는 수업을 접할 수 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https://www.gseek.kr>)’ 또한 의무과정과 외국어, IT, 인문 소양 등의 강의 1,500여 개를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 실시간 화상 학습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이름처럼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기엔 그만이다.

이 두 홈페이지는 이름과 달리 이용 대상자를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원하는 누구나 회원 가입해서 수강할 수 있으며 시기별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기회를 놓치지 말자.

더불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으로 익히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지역, 직종(NCS 기준), 훈련 유형 등에 따라 원하는 온·오프라인 직업능력 개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300~500만 원의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hrd.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갓 입직한 공무원이라면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활용해보자.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학습플랫폼으로, 영상,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망라한 학습자료 50만 건과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을 만나볼 수 있으며 소셜러닝과 학습 관리 기능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이러닝센터인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또한 훌륭한 선택이다. 국가비전·과제, 공직가치, 리더십·자기계발, ICT·정보화, 공통·전문 직무, 글로벌, 인문소양, 생활·건강 등을 아우르는 양질의 강의가 기다린다. 직급별 맞춤 수업과 집합과정연계 이러닝, 국가인증 마이크로러닝 등은 그야말로 지혜롭게 활용하기 나름이다.

인용 출처

매거진 한경, “미래도, 제가 곧대인가요?”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5117745b>

데일리 팝, “[이 앱 어때?] ‘혼란스러운 사회초년생들이여, 오라!’ 사회초년생을 위한 앱”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42108>

“[서기수의 정문일침] 사회 초년생의 슬기로운 월급관리”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15>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seoul.go.kr/main/MainView.do>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고용노동부 HRD-Net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인재개발플랫폼

www.learni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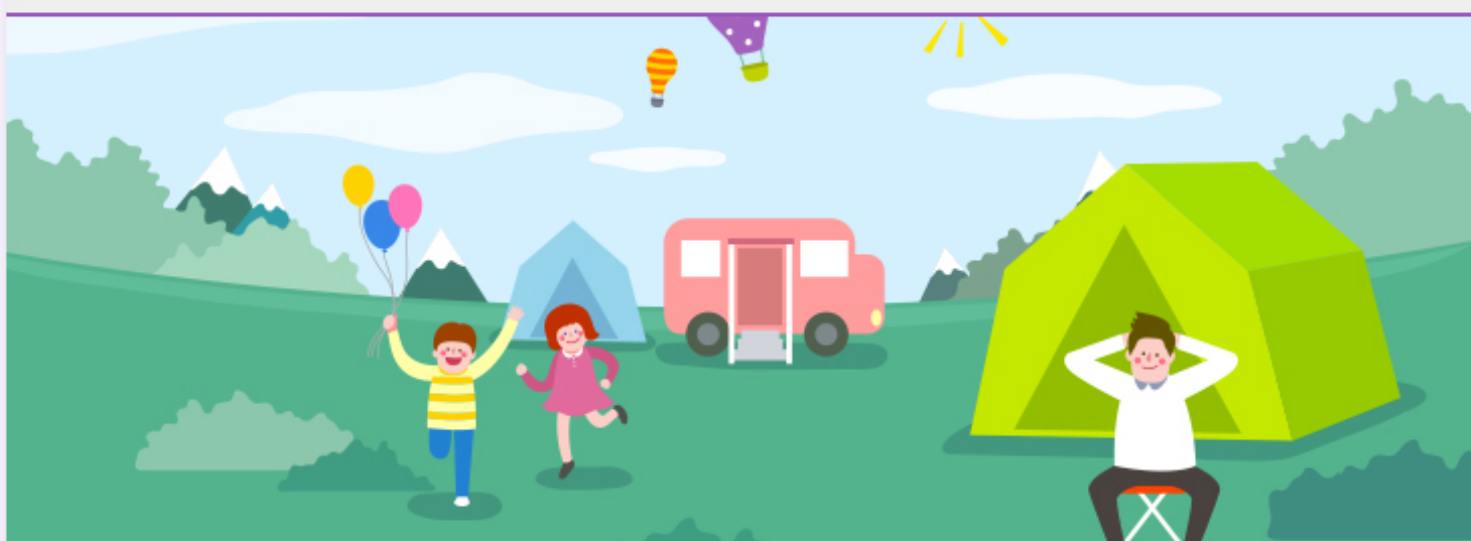
나라배움터

<http://e-learning.nhi.go.kr>

교보문고 추천도서

<https://www.kyobobook.co.kr/recommpage/recommBookSub.laf?serviceGb=01>

나를 더 스마트하게 해주는 Self 인재개발 퀴즈!



Quiz

국가인재원에서 지난 5월
국내 과학기술 우수 성과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공간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 힌트는 NHI NEWS를 참고하세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발행하는 <NHI Live>
대표 정책부터 행사, 이슈, HRD 소식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최신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정답을 맞힌 7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보내드려요!

제출기간

2022.06.08(수)~2022.06.30(목)

참여하기

< NHI Live 3월 퀴즈 당첨자 명단 >

김*경, 이*재, 박*현, 한*윤, 황*웅, 백*연, 차*우님
축하드립니다.